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①

3월 5일 입제
주제 - 설선대법회의 의의

자기 마음자리 바로보면 부처

說 禪 지유 스님 (범어사 조실)

선(禪)이란 뭐냐? 선의 내용, 선의 목적,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선이라고 해도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각 나라마다 수행방법이 틀리고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강물이 동으로, 서로, 북으로, 남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오든 궁극의 목적이 바다이고 바다로 들어갔다고 했을 때, 동으로 들어오면 맞고 서로 들어오면 틀리다는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맨 처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

문과 지식과 온갖 기술, 알음알이들이 구름처럼 자기를 둘러싸서 자기를 가리는 바람에 있어버리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데 다만 있어버리고 있는 원인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애, 옳다고 집착하는 것에 사로잡힌 까닭입니다. 지금이라도 선지식이나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고 망상과 집착 분별을 놓아버린다면 바로 부처님과 똑같이 깨닫습니다. 깨달은 그 마음자리에서 볼 때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탐미암아 벌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으로 탐미암아 모든 것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그 모습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실제 자기 자신은 생기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마치 물결이 생기니

사람은 동물과 달리 자기 돌아볼 줄 알아 난 도대체 뭔가 왜 이려고 있나 살펴보라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을 이룸불여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고, 우리는 무엇을 못 깨달았느냐는 말입니다. '무엇을' 깨달음으로써 부처님께서 이따까지 고통 받고 있던 것을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깨달았다는 것이 뭐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안 가진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발레 집중까지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도 일체 중생이나 미물 곤충까지도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느꼈고 생사가 없는 영원불멸한 무엇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그것을 찾아 출가를 하였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 하나 깨달음으로써 성취했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영원히 영원히 불생불멸(不生不滅)입니다. 그 마음자리는 깨치신 부처님만이 성취해서 있고 우리는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차를 마시고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일할 때 일하는 그 속에 조금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자기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며 쌓아온 학

까 나도 같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그 물결이 없어지면 나도 같이 없어지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망상집착이라고 했어요. 각자 자기 스스로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거기서만 해방된다면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지혜가 열립니다.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던 무슨 죄가 많고 무슨 병이 들었던 그거 고칠 필요 없이 있는 당장 그대로 장사꾼은 장사꾼대로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키면서 이것을 바로 보라. 이것밖에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 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했지요. 당시 사람들은 그래도 요체처럼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순박했기 때문에 듣자마자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랬던 것이 차츰차츰 시대가 흐르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자네가 말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 '시심마' '이것이 뭐냐' 하게 된 겁니다. 애초엔 간화선이다 목조선이다 위빠사나이다 하는 복잡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결코 복잡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머리로 글자로 아는 것과 깨달음과는 분명



지유(知有) 스님은 · 1931년 일본 동경 생 · 15세까지 일본에서 생활하다 해방과 함께 귀국 · 18세 되던 1949년 범어사에서 통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 50년 상월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와 비구계 수지 · 범양사, 선암사, 관음사 등 전국의 제법선원에서 수십만 거승한 · 문경 범양사, 부산 범어사 주지 역임 · 현재 설선대본산 범어사 조실

한 차이가 있습니다. 햇빛이 있는데 구름에 가려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릇하고 구름이 사라지고 빛을 받은 그릇하고 같습니까? 햇빛을 받으면 환하고 영통하고 그렇죠? 깨달음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학문과 지식이 있어도 망상분별을 제거 못하면 얼굴이 어두워요. 지식으로 알기는 많이 있는데 고민이 여전히 많다면 부처님같이 밝은 마음에 얼굴이 환하고 빛이 나겠습니까? 구름처럼 꼭 끼어 있는 사랑 분별을 때려잡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화두공안이 그것입니다.

진정한 화두공안은 뭘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셨을 때 당시 의도의 지도를 받고서 고생 고생하면서 수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중에 는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보다도 높은 경지에 올라 스승에게 정전을 받았어요. 하지만 부처님에게는 과연 이 경지가 불생불멸의 자리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 의심이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말은 자기가 자기를 꿰뚫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은 꼭 수행을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자기를

도대체 내가 뭐고 하고 돌아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목석이 아니고 바보가 아닙니다. 정신없이 살다가도 한 가지에 매달려서 열매도 좋고 간화선도 좋고 열심히 하다보니 자기 모습이 보여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동물과 다르지요.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한테 먹이를 갖다 주면 서로 먹으려고 싸움을 합니다. 그 개 중에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개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시기하고 싸우고 다름을 천년동안 하더라도 우리가 왜 이려고 있나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수행이고 원력을 세우고 하다면, 열심히 하다보면 사람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느낍니다. 다른 욕망이 없어지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의심이 생기고 그때 선지식들이 일러주는 말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천국이다 하며 바깥에서 찾습니다. 동양 사람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나 동양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가 않으니깐 진리, 도가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있다고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된 것입니다. <법화경>에 거지 아이가 자기 집은 부자였는데 집을 뛰쳐나가서 거지가 된 얘기가 나오지요? 그럼 본래 부자들인데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다시 부자들 아이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원래 부자들 아이였다고 알아차리면 되는 것이지. 다른 집 아이가 수행을 한다고 그 집 아이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 밖에 있다고 차차 수행해 가지고 물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말입니다. 거지가 자기가 부자들 아이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열매이고 기도를 해봐도 결코 자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면벽을 하고 있으면 면벽을 하는 내가 도대체 뭘지, 열매를 하면 열매를 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이려고 있는지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천년동안 애를 써서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나 말 한마디를 듣고 깨닫는 거나 깨닫는 거는 똑같은 이 말입니다. 불가에서는 '일초 직입여래지(一超直入如來地)'라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서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몸 부림'을 찾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화두공안입니다. 그 화두공안도 열심히 하다보면 깨달음이라는 것, 도라는 것은 뭘는데 있지 않아요. 왜?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찾으려 애를 써서 물속에 들어왔나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랑 관계없이 물속에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몸부림쳤을 때, '아! 내가 똥시 틀에 있었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본각(本覺)인줄 비로소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깨닫고 보면 뉘를 것이 없지만, 뉘를 게 없다고 하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부처님 등불” 수공예 전기촛불

귀의 삼보 하유니다. 기도 도량에 수행정진하시는 스님 불자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가 타면서 발생되는 문제점 화재위험 및 그늘음과 미세한 먼지 등이 인하여 건강을 걱정 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서 이런 절들을 해 소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수공예 양초를 이용한 전기 촛불을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조각 모양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고 안 되어 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하였습니다. 스님과 불자님 이제는 안심하시고 늘 24시간 “부처님 등불”을 밝히시 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등불 특징: 인장성과 그늘음이 없고 불자님 가정과 법당에 늘 같이 밝힐 수 있으며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사용처: 부처님전, 산신각, 탕하 등 기도용으로 널리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성취(자주) 소원성취(노란) 소원성취(흰색) 소원성취(파란)

연꽃조 법당, 탑돌이, 방성 등 특이 아와이 다양한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연불교예술인 | 불교공품 · 불상조성 · 전기촛불 · 양초제작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81-119번지 02)996-8830

세계최대 부처님 열반상

국유유량,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최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미암사에는 약수터 상단에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물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열반상 발바닥에 용자가 1만 6천여자가 새겨있으며, 손으로 만지면 중생의 번뇌를 소멸하고 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열반상 통속 법당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소불이 2만여불로 인동 불공을 화려하게 됩니다. 충남도지방 문화재 제 371호 소원성취기도도량 절바위에서는 원적외선 92.1%가 방출되어 성인병, 골관절염, 신진대사 및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98년도에 1과를 모셨는데 2004년도에 천전했음에 자연적으로 3과로 증가되어,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킨 부처님 도량입니다. 성취순례 오십시오. 모든 불자들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계항산 미암사
전화 041)832-1188, 832-1189 / 팩스 041)832-1187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국사봉 원국사

강원도 횡성의 국사봉 제상마위 중턱에 위치한 원국사는 지혜의 길, 선행의 길, 민유의 길로 모든 생명을 다 제도하겠다는 영원한 생명 아미타부처님의 기도도량이다. 원국사는 울창한 나무들이 곳 곳에 늘어서 있고, 비위에 서 흘러나오는 용천수는 공덕을 갖춘 약수로 달고, 차고, 부드럽고, 가볍고, 깨끗하여 아미타 부처님의 청수로 영험하여 많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기적의 아미타 염불기도도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광명과 화회와 생명으로 충만한 원국사에서 일체업장이 깨끗이 소멸되고 심중 소구 소원 원안성취 하옵소서.

진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하옵나이다.

2005년 2월 21일 대구 최명호 보살의 조성전도 49일 원강기도 청수의 열음 불을 사진 합니다.

마음의 귀의처 국사봉 원국사
회주 법용스님 주지 진포스님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옥동리 71번지
전화 033)343-1767~8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참꽃의 신묘한 약성을 조청으로 먹는다!

山寺 참꽃조청 · 약도라지조청

어혈, 노폐물, 피로독소, 적체인 에소 / 손발저림, 팔의 냉증, 다이어트 / 위장, 심장, 신장병 / 오장육부 기능 향상화 / 신경조율, 관음음, 정안, 원기회복에 기여

기관지, 천식, 기침의 완화 / 호흡기 질환개선 / 폐기능 강화, 피로 회복 / 거담, 배농 작용에 기여

속이 편안하면 오래살고 몸이 따뜻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 山寺 참꽃조청**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 연구가 김지문기사의 비법으로 참꽃 나무의 유독성은 제거하고 좋은 약성만 추출, 농축하였으므로 **누가 먹어도 율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山寺 참꽃조청**은 국내산 좋은 원료를 사용하여 사할에서 7일동안의 정성으로 겨우 한 술 고아지는 **극소량의 명품조청입니다.**
- 山寺 약도라지조청**은 천연 야생 약도라지에 야생약초를 가미하여 약도라지의 약성을 배가시켜 고통속 시킨 고품격 조청입니다.

문의 및 주문처 : 054-372-3166 **금융사**
054-372-5721

• 입금처 : 농협 727077-52-056761 현승희 (산사 참꽃조청과 약도라지 조청은 주문에 의해서만 만듭니다)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①



구주 스님

- 동국대 선학과 졸업
- 1900년 범어사에서 지유 스님을 은사로 출가
- 91년 사미계, 96년 구족계 수지
- 12년거 선반
- 현재 범어사원호원에서 정진중

구주 스님 : 간화선에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화두공안을 참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당대의 조사선에서는 모든 사람은 본래부터 청정한 자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행할 필요 없이 단지 쉬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조나 백장, 활백, 입제 등 많은 당대의 선승들은 한결같이 깨달음을 얻기위한 수행은 부정하고 단지 쉬라고만 합니다. 이점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는 간화선 입장과는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조실스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유 스님 : 당대의 입제 선사나 활백 선사는 뒤를 필요로 없다.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내자마자 심판 팔천리라 틀려먹었다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나 하면 자기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잘못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살펴 보라는 말입니다. 물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서 물을 모르고 내가 물을 찾아야겠구나 하고 물이 어디 있을고, 어디 있을고 하고 이미 자기 자리를 놔두고 떠났기 때문에 틀렸다 이말입니다.

말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손가락으로 말을 가리켰더니 입만 동안 손가락만 오매일여로 보고 있었다고 하면 말을 볼 수 있습니까?

화두공안도 '이렇고' 하든지 '무' 하든지 처음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하다보면, 진짜 화두는 화두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선문촬요> 강(講)할 때, 화두 얘기를 하나도 안 한다고 목조선(默照禪)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조라고 들어 보지도 못했고 목조선은 공부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남의 속을 알고 목조선이라 그러는지... 허허.

나도 화두공안 한 사람입니다. 화두밖에 몰랐고 <선문촬요>에 보면 화두공안이 하나도 안 나옵니

물속에 앉아 물을 찾고 있었네

다. 화두공안을 손가락에 비유하면 손가락을 제쳐 놓고 달을 바로 가리켜 줬다 이겁니다. 오히려 손가락을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보는 사람이다 이말입니다. 실지 화두공안의 참뜻은 뒤를 자리 없는 자리에 갔을 때에 깨닫는다 말입니다. 선사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뒤를 것이 없느니라 까지 겁니다. 그게 힌트입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안 됩니다. 뒤를 것이 없다는 그 말에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의심이 안 날수가 없어요.

지유 스님의 답변이 깊어지자 지한 스님이 구주 스님에게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간화선의 입장이라고 질문한 것이냐"고 물은 뒤 "질문자가 간화선에 대해 잘 모르고 질문한 것 같다"는 지적과 함께 정확한 질문의 요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구주 스님은 "간화선은 깨달음을 전제한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지한 스님은 "쉬라는 조사선과 비교할 때 화두를 통해 쉬라는 것이 간화선의 입장"이라며 구주 스님의 질문이 자칫 간화선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을 지적하며 환동산 설왕설래했다.

지유 스님 : 초심자가 들어왔을 때는 솔직한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병이 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3년쯤 선방에 가든지 자기 나름대로 공부해보라 합니다. 한바탕 주먹을 쥐고, 내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도저히 못 견딜 정도의 대분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르는다는 대의심, 또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룬다는 대신심을 내야 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라 말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해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물속에 들어앉아서 물을 찾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에게서는 뒤를 것이 없다. 뒤를 것이 없느니라 하는 그 모습이 실지 뒤는 모습이다 이말입니다.

지한 스님 : 깨달은 사람이라야 뒤를 것이 없다는 말이 되는데,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유 스님 :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방법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분통이 터져서 죽을 정도로 하라는 말입니다. 병이 나든지 공부를 성취하든지 둘 중의 하나다 이 말입니다.

곽만연 교수 : 지금 한국불교에서는 스님들뿐 아니라 재가 신자들도 수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행하는 재가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가자들은 여러 수행방법 가운데 어떤 수행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유 스님 : 신도들한테 질문을 자주 받는 것이, 우리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세속에 살다보니 생활을 해야 해서 스님들처럼 전심전력하지 못합니다. 수행하다 보니 실력이 소용없어서 가족에게 미안하

고 가사에 집중하다보면 공부에 소용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 두가지가 될 수 없어요. 일을 하다보니까 공부가 안돼 불안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면 일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마음뉘는 거예요. 마음의 정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 자신이 무엇이고 이 말 아니겠어요?

보통 공부라고 하면 자다 가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해라 공부한다고 하고, 화두를 드는 사람은 차 마실 때 '이렇고' 하면서 차를 마셔야 하는데 화두를 잊어버렸다면 깜빡 했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깨진 사람의 수행 모습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수행의 모습이 이렇게 다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언가 들고 들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애초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상생활, 행주좌와 어묵동정 전체가 공부 아닌 게 없습니.

일체 중생이 똑같이 할 수 있다 했는데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을 리 없는데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것이지. 못 믿겠거든 그것가지고 내가 의심을 해서 확인을 해보라 이겁니다. 그게 화두공안입니다.

곽만연 교수 : 범어사는 두 가지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라시대 의상 스님께서 화엄 심철 중의 하나로 장엄하신 사찰로 의상 스님의

스님께 묻습니다

질의 법사 : 구주 스님(원호암 수좌)
제가 질의자 : 곽만연(동대대 교수)



곽만연 교수

- 1960년 서울생
- 72년 동국대 인도철학과 졸업, 79년 동국대 대학원 인도철학과 석사, 동국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 현재 동국대 인문학부 교수, 동양철학회 등 이사
- '불교의 생명윤리 사상과 장가키어' 등 논문 다수

화엄사상은 신라 통일 의 정신적 초석이 되었습니 다. 두 번째 전통은 불교가 쇠퇴한 조선 말기에 경허 스님께서 범어사에서 오셔서 선종을 크게 진작시킨 선불교의 성지입니다. 이렇게 범어사는 화엄사상과 선사상이 함께 스며드는 성지 중의 성지입니다. 선과 교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유 스님 : 우리는 경(經)이라고 하나가 화엄경, 금강경 등 책자로 보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법문이 있었어요. 나에게 환관의 책이 있다. 즉 경이 있다. 이 책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종이나 먹으로 된 것이 아니다. 아무리 펼쳐 봐도 글자 한자도 없지만 항상 빛을 놓고 있다. 그것이 진짜 경이거든.

'어시문하사' 하고 읽는 이것이 경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엄경 따로 있고 선 따로 있고 염불 따로 있고 주려 따로 있고 그렇겠어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 내는 이게 염불이 아닙니다. 염불은 글자 그대로 생각할 염(念), 부처(佛),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를 생각한다. 부처가 무엇이고? 부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생각하는 것, 마음이 뭐냐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염불이요, 부처님께 공양할린 것이지, 공양 따로 있고 염불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근본 뜻은 똑같다 이 소립니다.

<관음경>에도 '백의관음무설설(白衣觀音無說說)-아무 설명하지 않았습니 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순동자불문(南巡童子不聞問)-듣지 않았습니 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법문이요 진짜 정법입니다. 그러나 화엄사상 따로 있고 선사상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려=천미회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깨닫고 보면 더 뒤를 것 없어... 禪-教는 깨달음의 내용이니 결국 하나



3월5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열린 설선대법회에는 1백여 스님들과 3천여 재가자들이 모여 지유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황의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불자님의 격려로 연구원을 응원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유년 새해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자님께서 변함없이 이끌어주시는 기원과 격려 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비의 기쁨이 크신 선물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장 이영숙 회장
■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 02)2677-5442
소연구원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숙신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초급에서 고급과정까지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정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백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저방법, 침술주요요법(一鍼法), 비교정법, 임상실습
▶ 개강 : 2005. 4. 4
월 · 화반 / 수 · 목반 / 금 · 토반 (주 · 야간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 경로자 우대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미해,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넘어 드리는 귀비요일의 강좌로 명문과 원문은 물론 일문까지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암 침술 학회
* 서울 :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 부산 : 좌천 지하철역 1번 출구 옆 (다정리치점 1004호)
문의 : 051)644-8571, 018-312-7110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음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믿니다. 현대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제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로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환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호한 치료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게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일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 인연있는 불자님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에게서도 인연있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함 마음으로 꼭 한번 해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과일의 왕 **두리안**

Sale!

두개 6.5KG이상 **55,000** 원
만박스 13KG이상 **100,000** 원

윤선으로 땅과사람을 같이 보듬드립니다.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하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여게 되었습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한 40도로 쿨방에 보관된** **특리안이 딱히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및 문의
불자님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